

**HAN-NA CHANG**

---

**MISCHA MAISKY**

---

**WITH DITTO ORCHESTRA**

**CREDIA MUSIC & ARTISTS**

Hermès,  
cavalier jewellery

CRE

**HAN-NA CHANG**

---

**MISCHA MAISKY**

---

**WITH DITTO ORCHESTRA**

**2023.9.23 SAT | 9.24 SUN |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23년 9월 23일 (토)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PM, Saturday, September 23, 2023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지휘 | 장한나 Han-Na Chang, Conductor

첼로 |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Cellist

연주 |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 드보르자크

A. Dvořák

체코 1841-1904

###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Allegro

Adagio, ma non troppo

Finale: Allegro moderato - Andante - Allegro vivo

빠르게

천천히

피날레: 빠르고 적절하게 - 느리게 - 빠르고 활력 있게

CREEDIA  
I N T E R M I S S I O N

### 베토벤

L. v. Beethoven

독일 1770-1827

### 교향곡 5번 c단조, Op. 67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Allegro con brio

Andante con moto

Scherzo: Allegro

Allegro - Presto

빠르고 생기있게

느리게 울동적으로

스케르초: 빠르게

빠르게 - 급하게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 CHANEL

## J12

IT'S ALL ABOUT SECONDS

## 안토닌 드보르자크

###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

체코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는 51세 때인 1892년에 뉴욕 국립 음악원의 초청으로 약 2년 반 동안 뉴욕에 체류하며 음악원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도 작곡에도 열의를 놓지 않아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1893)와 <현악사중주 12번 '아메리카'>(1893), <첼로 협주곡>(1894-95) 등 오늘날 주로 연주되는 그의 대표작들을 대거 발표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이 크게 환영받는 이유는 완숙한 수준에 오른 작곡 실력에 미국의 다민족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의 보편적 정서가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드보르자크는 이전에도 서구의 낭만 음악을 기반으로 체코의 정서를 표현했고, 미국에 입국했을 때 흑인영가가 미국 음악의 미래이며 미국적인 음악을 쓰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향수(鄉愁)를 달래주었던 아이오와주의 작은 체코인 마을 스피빌(Spillville)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중에 들었던 인디언 음악에 매료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적 정서와 미국의 대중적 정서의 화학작용이 드보르자크를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작곡가 중 한 사람이 되도록 한 바탕이 되었다.

<첼로 협주곡>은 뉴욕에서 보낸 마지막 해인 1895년에 완성되었다. (당시에는 이 곡이 그의 유일한 첼로 협주곡으로 알려졌지만, 24세 때였던 1865년에 쓴 <첼로 협주곡 가장조>가 1925년에 발견되어 간혹 '2번'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 곡은 드보르자크가 뉴욕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빅터 허버트(Victor Herbert)의 <첼로 협주곡 2번>을 듣고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강한 인상을 받은 2악장의 조성인 나단조를 사용했을 정도로 이 곡에 대한 감명은 각별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은 교향곡에 필적하는 관현악 규모와 40분이 넘는 장대한 길이를 가진, 낭만 시대에 유행했던 '심포니 콘체르토'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음향적으로 압도하거나 극적으로 과장

하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듯한 감성적인 멜로디로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유일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의 낭만 음악을 기반으로 체코 음악과 흑인영가, 인디언 음악이 함께 예술적으로 어우러진, 진정한 국제적인 작품이라는 점도 접근성을 높였다. 브람스도 "이러한 첼로 협주곡이 인간의 손으로 작곡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내가 썼을 텐데"라고 말하며 최상의 찬사를 보냈다.

1악장 '빠르게'. 상당히 긴 관현악의 서주로 시작한다. 엄숙한 제1주제가 클라리넷에 의해 제시되고 서정적인 제2주제가 혼에 의해 연주되어, 사실상 서주라기보다는 제시부에 가깝다. 그래서 첼로 독주는 전개부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첼로는 어떤 때는 강력한 영웅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부드럽게 노래하는 숙녀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표정을 들려준다.

2악장 '천천히'. 간단한 가요 형식으로서 독주에 집중되어 있다. 뉴욕에서 두 해를 보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강하게 느껴진다. 후반부는 관현악도 찾아 들면서 독주가 카덴차 풍으로 진행된다.

3악장 '피날레: 빠르고 적절하게-느리게-빠르고 활력 있게'. 민속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리듬과 깊은 내면의 감정이 깃든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져 있다. 론도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주제가 등장하는 순서가 일반적인 론도와는 다르고, 또한 네 개의 주제를 사용하면서 재현되지 않는 주제도 있어서 어떤 남모름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마지막에 삶을 관조하는 듯한 선율로 음악을 정리한 후, 마치 사회자가 등장하여 "이제 연극을 마칩니다!"라고 인사하듯이 갑자기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진행은 더욱 그러하다.

## 루트비히 판 베토벤

### 교향곡 5번 c단조, Op. 67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그토록 감동적인 것은 이 곡에 그의 삶의 과정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유명한 '운명의 동기'의 스케치가 최초로 등장하는 때는 1795년이였다. 그런데 이 동기는 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 본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5번, K. 503>(1784-86)에서 힘 있게 연주되는 단편인데, 이 곡이 바로 1795년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처음부터 교향곡의 주제로 구상했지는 확실치 않지만, 베토벤은 강렬한 인상을 받은 이 동기를 스케치북에 적어두었을 것이다. 1~3악장의 주요 선율이 구체화된 때는 한참 후인 1800-01년경이었다. 초기의 두 교향곡이 작곡되던 시기였지만, 이들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다 <영웅 교향곡>(1803)의 작곡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운명 교향곡>의 작곡을 시작했는데, 아마도 <영웅 교향곡>의 자매작으로 구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열의는 얼마 가지 못했다. 그가 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1799년에 제자로 만난 요제피네 브루스비크, 베토벤은 5년 후 미망인이 된 그녀와 곧 연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는 무게감 있는 진지한 교향곡을 작곡할 수 없었다. 결이 다른 <교향곡 4번>(1806)이 끼어든 것은 이러한 이유였다. 하지만 귀족이 된 요제피네는 결국 베토벤과의 결혼을 거부했고, 1807년에 결별하면서 베토벤은 오랫동안 서랍에 들어있었던 스케치를 꺼내 중단되었던 교향곡 작곡을 재개했다. 이렇게 베토벤의 머리와 정신, 마음속에서 10년 이상 배태된 이 다섯 번째 교향곡은 사랑의 실패에 대한 울분과 이를 극복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녹아있다.

이 곡이 교향곡이라는 양식의 틀에 있으면서도 매우 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악장은 운명에 사로잡힌 비극적인 모습이라면, 2악장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고, 3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쟁하며, 4악장은 피콜로와 콘트라바순, 세대의 트롬본이 추가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거대한 편성으로 힘찬 팡파르를 울리며 승리를 선언한다. 그래서 '운명 교향곡'보다는 '승리 교향곡'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려 보이기도 하다. 사랑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청각 손실의 고통과 계몽주의의 이상도 이 시나리오에 한몫했을 것이다.

그런데 베토벤이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했다는 첫 주제 선율이 단 두 마디의 길이에 G와 E♭ 두 개의 음정과 네 개의 음표뿐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 주제는 강박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반복하며, 서정적인 제2주제가 연주될 때에도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곧 제2주제를 집어삼키며 굴복시키고 만다. 그런데 다른 악장에서도 변형된 모습으로 재등장하면서 결국 운명의 노크는 승리의 팡파르로 변모한다! 그래서 단일주제로부터 발전하는 작품으로 분석되기도 하며, 다악장의 작품에 적용된 이러한 아이디어는 훗날 리스트와 프랑크의 '순환 주제'와 연결된다. 또 하나의 눈에 띄는 특징은 3악장 스케르초에 있다. '스케르초'는 본래 음악적 유희를 표현하는 악장이지만, 이 곡에서는 더 이상 유희가 아니다. 그리고 본래 첫 부분이 다시 반복되어야 하지만, 반복은 커녕 주제를 재현하는 등 마는 등 얼버무리다가 씬 없이 다음 악장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4악장의 팡파르는 더욱 통쾌하고 강력해진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곡이 형식보다는 극적인 이야기에 집중함을 방증한다.

1808년 12월 22일에 있었던 초연은 매우 추운 날씨에 네 시간이나 걸리는 방대한 프로그램의 한 곡으로서 이루어졌다. 음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탓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곡이 출판된 후 E.T.A. 호프만은 그 진면목을 알아보고 "감상자를 영원의 세계로 이끄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반면에 피아노 연주로 들은 괴테는 "정말 엄청난 작품"이라고 말하며 "미친 작품"이라고 소리쳤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는가?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 2023년 9월 24일 (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PM, Sunday, September 24, 2023 at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지휘 | 장한나 Han-Na Chang, Conductor

첼로 |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Cellist

연주 |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 드보르자크

#### A. Dvořák

체코 1841-1904

###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

####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Allegro

Adagio, ma non troppo

Finale: Allegro moderato - Andante - Allegro vivo

빠르게

천천히

피날레: 빠르고 적절하게 - 느리게 - 빠르고 활력 있게

CREEDIA  
I N T E R M I S S I O N

### 드보르자크

#### A. Dvořák

체코 1841-1904

### 교향곡 9번 e단조, Op. 95 '신세계로부터'

#### Symphony No. 9 in e minor, Op. 95 'From the New World'

Adagio - Allegro molto

Largo

Scherzo: Molto vivace

Finale: Allegro con fuoco

천천히 - 매우 빠르게

충분히 느리게

스케르초: 매우 생기있게

피날레: 빠르게, 열정적으로

·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에서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지휘자로**

CREEDIA

**장한나의 데뷔앨범 특별 재발매**



**TCHAIKOVSKY**  
**SAINT-SAËNS • Fauré • Bruch**  
장한나/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 차이콥스키: 로코코 변주곡 작품 33
- 포레: 엘레지 작품 24
- 생상스: 첼로 협주곡 1번 A 단조 작품 33
- 브루흐: 클 니드라이 작품 47

**장한나의 첫 LP 발매**



**백조 SWAN**  
장한나/레너드 슬래트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 포레: 꿈을 꾼 후에, 시실리아느
- 글라주노프: 음유시인의 노래
-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 차이콥스키: 녹턴
- 생상스: 백조 • 드보르작: 고요한 숲
- 김연준/록산나 파누프니크: 비가
- 브루흐: 아베마리아



## 뉴욕에서의 드보르자크

유럽에서 큰 명성을 얻은 안토닌 드보르자크(Antonín Dvořák: 1841-1904)는 1892년 가을에 뉴욕 국립 음악원의 원장으로 초빙받았다. 음악원의 설립자인 지네트 서버(Jeannette Thurber)가 제안한 연봉은 15,000달러로, 당시 재직 중이었던 프라하 음악원에서 받는 연봉의 무려 25배나 되는 굉장한 거금이었다. 고국의 전원을 사랑했던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뉴욕 시기는 드보르자크에게 작곡가로서 인정받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행복하게 지내던 때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대표적인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1893)와 <현악사중주 12번 '아메리카'>(1893), <첼로 협주곡>(1894-95) 등이 줄줄이 탄생했다. 이들은 유럽의 낭만 음악을 기반으로 체코의 음악과 미국의 음악, 특히 흑인영가와 인디언 음악이 혼합되어있는 특징을 보인다. 드보르자크는 1892년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음악의 미래이며 미국적인 음악을 쓰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흑인영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악원의 유일한 흑인 학생인 해리 벌레이(Harry Burleigh)를 자주 집으로 초청하여 흑인들의 노래를 듣고 채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향수를 달래려 휴가 때마다 방문했던 아이오와주의 작은 체코인 마을 스피빌(Spillville)에서 1893년 여름에 우연히 들은 인디언 음악도 그를 매료시켰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적 정서와 미국 문화의 대중 지향적 정서의 화학작용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의 보편적 정서가 그의 작품이 스며들었기에, 오늘날 드보르자크는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작곡가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뉴욕 국립 음악원의 재직 기간은 2년 반 정도 뿐이었다. 비소카(Vysoká)의 전원 별장이 그리워서이기도 했지만, 뉴욕 증시의 붕괴로 서버의 집안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안토닌 드보르자크

###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

<첼로 협주곡>은 뉴욕에서 보낸 마지막 해인 1895년에 완성되었다. 이 곡은 드보르자크가 뉴욕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빅터 허버트(Victor Herbert)의 <첼로 협주곡 2번>을 듣고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강한 인상을 받은 2악장의 조성인 나단조를 사용했을 정도로 이 곡에 대한 감명은 각별했다.

이 곡은 교향곡에 필적하는 관현악 규모와 40분이 넘는 장대한 길이를 가진, 당시 유행했던 '심포닉 콘체르토'의 경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음향적으로 압도하거나 극적으로 과장하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는 듯한 감성적인 멜로디로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유일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의 낭만 음악을 기반으로 체코 음악과 흑인영가, 인디언 음악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진, 진정한 국제적인 작품이라는 점도 접근성을 높였다. 브람스도 "이러한 첼로 협주곡이 인간의 손으로 작곡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내가 썼을 텐데"라고 말하며 최상의 찬사를 보냈다.

1악장 '빠르게': 상당히 긴 관현악의 서주로 시작한다. 엄숙한 제1주제가 클라리넷에 의해 제시되고 서정적인 제2주제가 혼에 의해 연주되어, 사실상 서주라기보다는 제시부에 가깝다. 그래서 첼로 독주는 전개부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첼로는 어떤 때는 강력한 영웅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부드럽게 노래하는 숙녀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다양한 표정을 들려준다.

2악장 '천천히': 간단한 가요 형식으로서 독주에 집중되어 있다. 뉴욕에서 두 해를 보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강하게 느껴진다. 후반부는 관현악도 찾아들면서 독주가 카덴차 풍으로 진행된다.

3악장 '피날레: 빠르고 적절하게-느리게-빠르고 활력 있게': 민속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리듬과 깊은 내면의 감정이 깃든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져 있다. 론

도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주제가 등장하는 순서가 일반적인 론도와는 다르고, 또한 네 개의 주제를 사용하면서 재현되지 않는 주제도 있어서 어떤 남모를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마지막에 삶을 관조하는 듯한 선율로 음악을 정리한 후, 마치 사회자가 등장하여 “이제 연극을 마칩니다!”라고 인사하듯이 갑자기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진행은 더욱 그러하다.

## 안토닌 드보르자크

### 교향곡 9번 e단조, Op. 95

#### ‘신세계로부터’

드보르자크는 뉴욕 체류 시기였던 1893년에 뉴욕 필하모닉의 위촉으로 아홉 번째 교향곡을 작곡했으며, ‘신세계로부터’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안톤 세이들(Anton Seidl)의 지휘로 카네기홀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흑인영가와 인디언 음악의 선율을 인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드보르자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제가 새 교향곡에서 재현하려고 한 것은 흑인영가와 인디언 선율의 정신일 뿐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 어떤 멜로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이 내용은 1900년 2월 베를린에서 이 곡의 지휘를 준비하던 오스카 네드발(Oskar Nedbal)에게 보낸 편지에도 등장한다. “교향곡에 대한 크레취마리의 분석을 보내드리지만, 제가 인디언과 미국의 동기를 사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빼주세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국가적인 미국 선율의 정신으로만 작곡하는 것이 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플루트가 연주하는 1악장 제2주제는 흑인영가 ‘Swing Low, Swing Chariot’에서 유래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 곡은 벌레이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드보르자크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곡이었다.

1악장 ‘천천히-매우 빠르게’. 어스름한 분위기의 서주가 첼로와 목관에 의해 연주된 후, 강한 현악이 정적을 깬다. 그리고 호른이 마단조 으뜸화음을 펼친화음

으로 리듬을 타고 오르내리는 첫 주제를 연주한다. 제2주제는 플루트에 의해 조심스럽게 제시된다. 이 악장에는 세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데, 제1주제를 뒤집고 조성을 사장조로 바꾸어 분위기를 전환한다.

2악장 ‘충분히 느리게’. 유명한 첫 주제는 오보에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고 깊은 음색을 가진 잉글리시 혼으로 연주된다. 바이올린이 이를 이어받아 심각한 분위기로 변형하지만, 다시 잉글리시 혼이 평안하게 매듭짓는다.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불안한 이중주 후, 첼로의 피치카토 반주에 목관의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다. 이 부분은 미국 대초원의 새벽의 신비로움을 표현하며, 이어 정적을 깨는 오보에의 기상 신호와 함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다시 잉글리시 혼의 주제가 등장하며 평온하게 마친다.

3악장 ‘스케르초: 매우 생기있게’. 롱펠로우의 시 ‘하리아와서의 노래’(The Song of Hiawatha) 중 결혼 축제 부분에 있는 인디언들의 춤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 트라이앵글의 트레몰로가 강한 인상을 주는 강렬한 서주 후, 목관이 잔뜩 긴장감을 품고 기계적으로 대화하는 주제가 제시된다. 그러다 호흡이 길고 목가적인 주제가 목관에 의해 연주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된다. 그리고 목관 앙상블에 의해 포크 댄스가 연상되는 부점 리듬 선율과 트라이앵글의 청명한 소리가 인상적인 또 하나의 주제가 등장한다. 스케르초로서 첫 부분의 선율이 다시 등장한다.

4악장 ‘피날레: 빠르게, 열정적으로’. 서주 부분이 영화 ‘쇼스’에 사용되어 유명해졌다. 또한 이어서 등장하는 금관의 당당한 팡파르 또한 통쾌하고 매력적이다. 이후 전곡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심벌즈 소리와 함께 적막한 숲속에 들어선 듯 고요한 클라리넷 주제가 들려온다. 이 두 선율을 바탕으로 소나타 형식으로 전개되면서, 앞의 다른 세 악장의 선율도 등장하여 거대한 대단원으로 마무리한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CREDIA

© KIRAN WEST

13



## 지휘자 장한나

---

### Han-Na Chang Conductor

장한나의 독보적이고 뛰어난 국제 경력은 30년에 걸쳐 이어져 왔다. 2024년은 장한나가 열한 살의 나이로 파리에서 열린 제5회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장한나는 2017년부터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 오페라의 예술감독 겸 수석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다.

2023-24 시즌에는 비엔나, 시드니, 멜버른, 베른, 토리노 RAI, 뉴질랜드,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와, 린츠에서 열리는 2023 브루크너 국제 페스티벌 폐막 콘서트에서의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린츠 지휘가 예정되어 있다. 장한나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루크너 8번, 말러 3번, 7번 교향곡을 연주하며 다양하면서도 핵심적인 교향곡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베토벤 사이클의 피날레를 베토벤 장엄 미사로 장식할 예정이다. 또한 함부르크 심포니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2번과 프로코피예프 5번 교향곡을 연주하며 러시아 교향곡 레퍼토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객원 지휘자로서 장한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쾰른 방송 교향악단, 밤베르크 심포니, 토론토, 함부르크, 빈, 싱가포르, 도쿄, 신시내티, 세인트 루이스, 인디애나폴리스, 시애틀, 밴쿠버, 디트로이트, 밀워키, 예테보리, 말뫼, 오덴세 및 아이슬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영국 필하모니아 관현악단,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국립 대만 심포니 오케스트라 및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장한나는 2017년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 오페라의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서 활약하며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했다. 2013-14 시즌에는 카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재임하며 2014년 런던 BBC 프롬스에서 극찬을 받은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었다. 2009년에는 한국의 성남아트센터에서 애플루트 클래식 페스티벌을 창설하여 2014년까지 예술 감독으로 활동했다. 매년 여름 열린 이 페스티벌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주요한 교향곡 레퍼토리를 폭넓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흥미로운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걸작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장한나는 2007~2008년 MBC TV를 통해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직접 해설하고 지휘하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장한나는 열한 살이던 1994년, 파리에서 열린 제5회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이끄는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1등상과 현대 음악상을 수상하며 어린 나이답지 않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전례 없는 나이로 대회의 우승을 차지한 이후, 장한나는 국제적인 커리어

를 쌓으며 전 세계 주요 콘서트홀과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는 독주자 및 협연자로 활동했다. 첼리스트로서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뮌헨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시카고, 보스턴 및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바 있다. 워너 뮤직 레이블에서 독점적으로 발매한 장한나의 첼로 음반은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고, 두 번의 에코 클래식 상, 세실리아 상, 칸 클래식 상, 그라모폰 올해의 협주곡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장한나는 1982년 12월 대한민국 수원에서 태어나, 6살에 첼로를 시작했다. 줄리어드 음대에서 음악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1993년 뉴욕으로 이주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10세 때 미샤 마이스키(Mischa Maisky)를 사사하기 시작했는데, 장한나는 마이스키를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주세페 시노폴리와 함께 그녀의 성장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멘토라고 말한다. 장한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교향곡 레퍼토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키워온 장한나는 2007년, 24세의 나이에 정식 지휘자로 데뷔했으며, 이후 지휘에만 예술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Han-Na Chang's prestigious and unique international career spans three decades. 2024 will mark the 30th Anniversary of her extraordinary debut on the international stages, when as an 11-year old, she won the First Prize at the Fifth International Rostropovich Cello Competition in Paris.

Han-Na Chang serves as the Artistic Leader and Chief Conductor of the Trondheim Symfoniorkester & Opera in Norway since 2017, and Erste Gastdirigentin (Principal Guest Conductor) of the Symphoniker Hamburg - Laeiszhalle Orchester since 2022.

The 2023-24 season will see her guest conduct the Vienna, Sydney, Melbourne, Bern, RAI Torino, New Zealand and Singapore Symphony Orchestras, as well as the Bruckner Orchester Linz at the closing concert of the International Brucknerfest Linz 2023. With the Trondheim Symfoniorkester, she continues to build the Orchestra's diverse yet core symphonic repertoire driven sound profile with performances of Bruckner 8, Mahler 3 & 7 as well as the conclusion of their acclaimed Beethoven Cycle culminating with Beethoven Missa Solemnis. With the Symphoniker Hamburg, she will perform Rachmaninov 2 and Prokofiev 5, continuing their exploration of the Russian Symphonic Repertoire.

As a guest conductor, Han-Na Chang's has worked with Oslo Philharmonic Orchestra, the Rotterdam Philharmonic, Sächsische Staatskapelle Dresden, WDR Sinfonieorchester Köln, Bamberger Symphoniker, the Toronto, Hamburg, Vienna, Singapore, Tokyo, Cincinnati, St Louis, Indianapolis, Seattle, Vancouver, Detroit, Milwaukee, Gothenburg, Malmo, Odense and Iceland symphony orchestras, the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Orchestra, Minnesota

Orchestra, the Philharmonia Orchestra (UK), the Royal Stockholm Philharmonic Orchestra,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National Taiwan Symphony Orchestra and Orchestra del Teatro di San Carlo di Napoli.

Han-Na Chang started her critically acclaimed tenure as the Artistic Leader and Chief Conductor of the Trondheim Symfoniorkester & Opera in Norway in 2017. Prior to this appointment, she served as the orchestra's Principal Guest Conductor during 2013 -17. She served as the Music Director of the Qatar Philharmonic Orchestra during the season 2013-14, culminating in their successful and critically acclaimed performance at the 2014 BBC Proms in London. In 2009, she founded and launched the Absolute Classic Festival at Sungnam Arts Center in South Korea and served as its Artistic Director until 2014. The annual summer festival served two purposes: intense orchestral training giving its musicians a broad and deep exposure to all the major symphonic repertoire, and in turn introducing such masterpieces in exciting performances to the local audiences. Han-Na Chang has also recorded introductions and complete performances of the Beethoven Symphonies for the MBC TV in South Korea over 2007-2008.

She first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her precocious musical gifts at the age of 11, when she won the First Prize and the Contemporary Music Prize at the Fifth Rostropovich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 in Paris in 1994, awarded unanimously by the jury led by Mstislav Rostropovich. Following this victory at an unprecedented age, her international career took her to all the major concert halls and the top orchestras around the world as an in-demand recitalist and soloist. As a cellist, she has performed with orchestras such as the Berliner

Philharmoniker, New York and Los Angeles Philharmonic, London Symphony Orchestra,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ünchner Philharmoniker, Philadelphia Orchestra, l'Orchestre de Paris, Filarmonica della Scala, Orchestra dell'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The Cleveland Orchestra and the Chicago, Boston and San Francisco Symphony orchestras. Her cello recordings, exclusively for the Warner Music label have been nominated for the Grammys, awarded two ECHO Klassik awards, the Caecilia and Cannes Classical awards, as well as a Gramophone Concerto of the Year accolade among others, and remain world-wide bestsellers.

Han-Na Chang was born in Suwon, South Korea in December 1982. At the age of 6, she received her first cello lesson. Her family moved to New York in 1993 in order to support her continuing musical studies at the Juilliard School, and she has lived in New York since. At the age of 10, she also started studying with Mischa Maisky who together with Mstislav Rostropovich and Giuseppe Sinopoli she counts as the most influential mentors of her formative years. Han-Na Chang read Philosophy at Harvard University. After developing an intense interest in and deep passion for the symphonic repertoire during her late teens and early twenties, she made her formal conducting debut in 2007, at the age of 24, and has since then focused her artistic output exclusively to conducting.



**CREDIA**

##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 Mischa Maisky Cellist

미샤 마이스키는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한 유일한 첼리스트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미샤 마이스키에 대해 “젊은 세대의 첼리스트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연주는 시와 정교한 섬세함, 위대한 기질과 찬란한 테크닉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라트비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미샤 마이스키는 런던, 파리, 베를린, 비엔나,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미샤 마이스키는 자신을 ‘세계시민’이라고 자칭한다. “저는 이탈리아산 첼로를 연주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산 활을 쓰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산 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6명의 자녀는 4개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스리랑카-이탈리아 혼혈입니다. 저는 일본 차와 미국산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스위스 시계를 차고 인도의 목걸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모든 곳이 집같이 느껴집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주요 국제 페스티벌의 단골 초청 연주자인 그는 레너드 번스타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로린 마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주세페 시노폴리,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다니엘 바렌보임, 제임스 레바인, 샤를 뒤투아, 유리 테미르카노프, 마리스 안손스, 발레리 게르기예프, 키릴 페트렌코, 파보 예르비, 구스타보 두다멜과 같은 지휘자들과 연주해왔다. 또한 마르타 아르헤리치, 라두 루푸, 넬슨 프레이레, 예프게니 키신, 이차크 펄만, 랑랑, 피터 제르킨, 기돈 크레머, 유리 바쉬메트, 바딤 레핀, 막심 벤게로프, 조슈아 벨, 줄리안 라홀린, 야니네 안센 같은 많은 저명한 연주자들과 협연하였다.

2000년은 미샤 마이스키에게 특별한 해였다. 그는 그 해 바흐 투어로 전세계에서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하였고, 바흐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3번째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Solo Suites)을 녹음하였다. 그 중 첼로 모음곡 1번은 유튜브에서 45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도이치그라모폰(DG) 전속 아티스트인 미샤 마이스키는 지난 30년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유럽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35장 이상의 앨범을 발매하였다.

2018년 8월에는 그의 딸인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와 함께 무척 개인적인 음반인 <아다지에도>를 발매하였다. 말러 교향곡 5번의 아다지에도를 첼로 버전으로 편곡하여 하프를 제외한 모든 파트를 마이스키가 연주한 곡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너스 트랙으로 마르타 아르헤리치, 야니네 안센, 줄리안 라홀린,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사샤 마이스키와의 라이브를 수록하였다.

그의 가장 최근 음반은 2019년 가을에 발매된 <20세기 클래식>으로 미샤 마이스키에게 헌정된 벤자민 유수포프의 첼로 협주곡 세계 초연과 빌라 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멀티 트랙 레코딩이 수록되어 있다.

2021년 6월, 도이치 그라모폰은 40장 이상의 CD가 수록된 미샤 마이스키 음반 전집 세트를 발매하였다. 그는 권위

있는 도쿄의 레코드 아카데미상을 다섯 번 수상했고, 세 번의 독일 레코드상(Echo Deutscher Schallplattenpreis)을 수상했으며, 파리의 그랑프리 뒤 디스크상(Grand Prix du Disque), 올해의 디아파존(Diapason d'Or)상 등을 수상했고 그래미상의 후보로 여러 번 선정되기도 하였다.

미샤 마이스키의 길고 화려한 경력은 그에게 많은 명예와 상을 안겨주었다. 2018년 제 46회 이스탄불 음악제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며, 그의 깊은 예술성과 음악에 대한 헌신에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첼리스트 중 한 명'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2019년에는 현존하는 300명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인 영국 왕립음악원의 명예 회원으로 임명되어 멘델스존, 리스트,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카잘스와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2021년 미샤 마이스키는 1585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음악 기관 중 하나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명예 학술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는 가장 뛰어난 외국 음악가 및 음악학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마이스키는 지금까지 이를 수여받은 단 두 명의 첼리스트 중 한 명이다. 2021년 6월에는 예루살렘 음악 및 무용 아카데미의 명예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Mischa Maisky ha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cellist in the world to have studied with both Mstislav Rostropovich and Gregor Piatigorsky.

Rostropovich lauded Maisky as "... one of the most outstanding talents of the younger generation of cellists. His playing combines poetry and exquisite delicacy with great temperament and brilliant technique."

Born in Latvia, educated in Russia and later repatriated to Israel; Maisky has been enthusiastically received in London, Paris, Berlin, Vienna, New York, Tokyo and many other major music centres. He considers himself a citizen of the world: "I'm playing an Italian cello, with French and German bows and Austrian and German strings, my 6 children were born in 4 different countries, my wife is half Sri Lankan-half Italian, I'm driving a Japanese and an American electric car, I wear an Indian necklace and a Swiss watch, and I feel at home everywhere where people appreciate and enjoy classical music."

Truly a world-class musician and a regular guest at most major International Festivals, he has collaborated with such conductors as Leonard Bernstein, Carlo Maria Giulini, Lorin Maazel, Zubin Mehta, Riccardo Muti, Giuseppe Sinopoli, Vladimir Ashkenazy, Daniel Barenboim, James Levine, Charles Dutoit, Yuri Temirkanov, Mariss Jansons, Valery Gergiev, Kirill Petrenko, Paavo Jarvi and Gustavo Dudamel.

His musician partnerships have included artists such as Martha Argerich, Radu Lupu, Nelson Freire, Evgeny Kissin, Itzhak Perlman, Lang Lang, Peter Serkin, Gidon Kremer, Yuri Bashmet, Vadim Repin, Maxim Vengerov, Joshua Bell, Julian Rachlin and Janine Jansen to name just a few.

One of the highlights of his career was the year 2000. It was mainly devoted to a world-wide Bach tour of over 100

concerts! An expression of his deep admiration for this great composer is that Maisky has recorded Bach's Solo Suites three times, with his Cello Suite No. 1 being viewed more than 45 million times on YouTube.

As an exclusive Deutsche Grammophon artist for more than 30 years he made over 35 recordings with such orchestras as the Vienna, Berlin and Israel Philharmonics, the London Symphony, L'Orchestre de Paris, Orpheus Chamber Orchestra,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others.

In 2018, the very personal album 'Adagietto' was released with his pianist daughter Lily, and featuring bonus live recordings with Martha Argerich, Janine Jansen, Julian Rachlin and his violinist son Sascha. Included is a multitrack arrangement of Mahler's Adagietto from his 5th Symphony with Maisky playing all parts (except the harp), a project the cellist had dreamed of for many years.

His latest recording is entitled '20th Century Classics' and includes a Bonus CD of the world premiere of Benjamin Yusupov's cello concerto (dedicated to Maisky) as well as a multi-track recording of 'Bachianas Brasileiras' by Heitor Villa Lobos.

In June 2021 DG released a set of complete recordings with over 40 CDs.

Maisky's recordings have enjoyed world-wide critical acclaim and have been awarded the prestigious Record Academy Prize in Tokyo five times and the Echo Deutscher Schallplattenpreis three times, as well as the Grand Prix du Disque in Paris and the Diapason d'Or of the Year, as well as receiving several coveted Grammy nominations.

His long and illustrious career has brought Maisky many honors and awards, just some of which include:

In 2018, as Maisky was awarded the 46th Istanbul Music Festival Lifetime Achievement Award, he was lauded as 'one of the greatest living cellists of our time' for his 'profound artistry and devotion to music'. In 2019, he was awarded Honorary Membership of the Royal Academy of Music. This honor is limited to 300 living persons at a time, recognising Maisky alongside such greats as Mendelssohn, Liszt, Stravinsky and Casals.

In 2021, Maisky was appointed Honorary Academician of the Accademia di Santa Cecilia; founded in 1585, one of the oldest and most prestigious musical institutions in the world. The title of 'Accademico Onorario' is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oreign musicians and musicologists"

and Maisky is only the second cellist ever to receive it. In June 2021, Maisky received the Honorary Fellow Award of the Jerusalem Academy of Music and Dance.



## 디토 오케스트라

### DITTO Orchestra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 및 2022년부터는 강동문화재단(강동아트센터)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 악장

정하나

#### 제1바이올린

김지윤 ◆  
노현주  
신동진  
박경화  
송태진  
김단비  
김민진  
한종범  
배재영  
장사무엘  
이가현  
김찬아  
김누리

#### 제2바이올린

이지원 ◇  
황지은  
장새로미  
류새라  
이연준  
류아영  
안세빈  
이수진  
김신아  
도예성  
김지윤  
김윤경

#### 비올라

조윤주 ◇  
김지유  
안은지  
최혜미  
박일지  
노소희  
오현주  
강민정  
권해안  
심나은

#### 첼로

정광준 ◇  
박소진  
한동윤  
박성진  
최 영  
이수연  
임종현  
남아연

#### 더블베이스

배기태 ◇  
정선재  
김동현  
이다겸  
서기철  
최승규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정통 심포니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뿐 아니라, 장한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및 유키 구라모토 내한 공연의 파트너, 롯데콘서트홀 키즈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을 받았던 디토 카니발 및 아마데우스 라이브, 겨울왕국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콘서트와 같은 필름콘서트는 물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등 모든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자산어보>, <모가디슈>의 OST 녹음에 참여하였다.



**플루트**

유지홍 ◊  
안일구  
허지희

**오보에**

김영민 ◊  
윤하영  
박인영

**클라리넷**

이진아 ◊  
신 명

**바순**

백승훈 ◊  
백수경  
신동근

**호른**

고영종 ◊  
오정탁  
김현영  
마민지  
양지명

**트럼펫**

정태진 ◊  
박상헌  
이지훈

**트럼본**

설용빈 ◊  
황인환  
손상우 ◊

**튜바**

김지은

**팀파니**

성주인 ◊

**퍼커션**

이안드레  
이장용

## 지휘자와 협연자로 한 무대에 서다 장한나 & 미샤 마이스키

오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예술의전당에서 멋진 무대가 펼쳐진다. 이제는 '지휘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장한나와 그의 첼로 스승 미샤 마이스키가 한 무대에 선다. 2015년 영국 클래식 전문지 <BBC 뮤직 매거진>이 뽑은 현존하는 최고의 여성 지휘자 19인에 오른 장한나는 스승과 만나는 이 역사적인 무대에서 디토 오케스트라를 지휘,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5번,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한다.

장한나의 첼로 연주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녀가 활을 놓고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을 많이 아쉬워했을 것이다. 특히 장한나가 첼리스트로서 마지막 남긴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첼로 소나타와 협주곡 앨범은 지금도 명반으로 회자되고 있고, 유럽의 주요 클래식 음반지로부터 '초연자이자 스승인 로스트로포비치를 뛰어넘는 명연'이라는 평을 받았기에 그녀가 첼로를 더 이상 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컸다.

하지만 2007년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SIYOF)을 통해 지휘자로 데뷔했을 당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젊은 연주자들을 통합하고 멋진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모습의 음악가, '지휘자 장한나'를 보게 됐다. 특히 솔리스트로서 마주했던 모습과는 달리 많은 사람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응원하게 됐다.

지휘자로서 그간의 행보는 근사했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리버풀 필하모닉, 나폴리 심포니, 시애틀 심포니, 이스탄불 필하모닉,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2013년에는 잠시 음악감독을 맡았던 카타르 필하모닉과 함께 BBC 프롬스 무대에 섰다. 첼리스트로서 만들어냈던 그녀의 음악을 이제 수십 명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일구어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보를 지켜본 영국의 대표적인 클래식 전문지 <BBC 뮤직 매거진>은 2015년, '최고의 여성 지휘자 19인'에 장한나의 이름을 올렸다.

2016/17 시즌부터 음악감독을 맡게 된 노르웨이의 명문 트론헤임 오케스트라는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대신해 베를린 필하모닉을 20대에 지휘했던 다니엘 하딩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음악감독을 맡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크쉬슈토프 우라빈스키가, 그 뒤를 장한나가 이어 이끌고 있다.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북유럽에서 탄생하는 배경에는 젊고 실력 있는 지휘자들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낼 수 있도록 철저히 뒷받침해 주는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이다. 여세를 몰아 2022년부터는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간 장한나는 자신만의 색깔과 역량을 확실히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음악적 힘을 키우고 내한 무대를 통해 실력을 선보인 바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올해 6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부천아트센터에서 베토벤 교향곡을 지휘했다. 지휘자 장한나에게 베토벤은 말러, 브루크너와 함께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로 2020년 3주간 트론헤임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무산된 이후,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베토벤 교향곡을 선보여왔다.

장한나에게 최고의 솔리스트로서 활동하다가 지휘봉을 잡은 이들만의 특별한 이점이 있을까 물었다.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하루 여덟 시간 이상 악기와 살고, 자나 깨나 음악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끌어내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무엇보다도 악보에 있는 것만이 아닌, 악보 뒤에 감춰진 소리를 내 손끝으로 끌어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지휘자가 현악기를 잘 안다는 것은 저로서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어떤 악기든 본인이 마스터한 악기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필드에서 똬 경험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휘는 필드에 뛰어들어 직접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 흐름을 제시해야 하는 코치잖아요. 추상적인 영역인데, 현실적인 연주 경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면 훨씬 좋죠.”

## 스승 미샤 마이스키와 한 무대에 서다

오는 9월 23일과 24일에는 디토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첼로 스승이자 멘토인 미샤 마이스키와 한 무대에 서게 된다. 첼리스트가 아닌 지휘자로서 마이스키와 함께한 첫 무대는 2012년, 성남아트센터 기획 시리즈인 <애크솔루트 클래식>이었다. 제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나섰던 마이스키는 첫 레퍼토리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연주했고, 장한나가 트론헤임 오케스트라의 정식 음악감독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7년에도 노르웨이를 찾아 드보르자크 협주곡을 연주한 바 있다. 2020년 5월 시즌 마지막 공연으로 예정되었던 ‘영웅의 생애’ 연주는 코로나로 연기되어 2022년 마침내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 지난해 내한 무대를 가졌던 마이스키에게 장한나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다.

“한나는 알다시피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함께해 왔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주 만나서 항상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한나가 지휘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로스트로포비치를 떠올렸다. 스승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한 무대에서 함께 첼로를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지휘자로서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첼로처럼 사랑하고 자식처럼 아끼고 키워내는데,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태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나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내가 그녀의 활동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장한나를 아끼는 애호가들이라면 마이스키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디토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무대에 서는 장한나는 23일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미샤 마이스키 협연)과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지휘하고, 24일에는 같은 협주곡과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지휘한다. 늘 최고의 무대를 선사해왔던 그녀의 행보에 기대감과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글 | 이지영 (클럽발코니 편집장,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클럽발코니 매거진 2023년 7월호 전자

## Interview with Han-Na Chang & Mischa Maisky

### Q. 한국에서는 11년 만에 함께 무대에 오르시는데요, 공연을 앞둔 소감이 궁금합니다.

장한나 : 음악가로 살면서 정말 중요했던 첫 순간들이 있었어요. 음악과 연주자란 무엇인지 제 눈을 열어주신 미샤 마이스키 선생님, 연주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연주한 드보르자크,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불을 지펴준 베토벤까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훌륭한 분들이 모두 이번 공연에 모여 있어,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러우며 설렙니다.

미샤 마이스키 : 장한나와의 인연이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국에 올 때마다 매년 특별한 기분을 느끼지만, 이번 내한은 제 유일무이한 제자인 장한나와 함께하기에 더욱 특별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Q : 두 분의 인연의 시작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요?

미샤 마이스키 : 한나의 연주를 처음 들은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시다. 개인적으로 '환생'을 믿는데, 그 작은 소녀에게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후로도 함께 무대에 오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죠.

장한나 : 제가 9살이었을 때 마이스키 선생님이 독주회를 위해 내한하셨어요. 사인회를 할 때 아버지가 제 연주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건네셨죠. 1~2주쯤 지나서, 선생님이 매년 여름 지도를 하는 이탈리아의 한 마스터 클래스에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의 국제 우편을 받았습시다. 감격적이었죠. 선생님은 10살 꼬마였던 제게 '연주자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 해석은 악보에 기반해야 한다. 악보는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살아 있던 인격이 쓴 것이며 혼이 들어간 것'이라는 대단한 가르침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 Q : 이번에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과 교향곡 9번,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합니다. 프로그램을 선곡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어떤 공연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장한나 : 공연 전반부에서 연주할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은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첼로의 어우러짐, 첼로라는 악기 하나가 감당해야 하는 오케스트라의 무게감이 상당한 곡이죠. 그래서 지휘자나 오케스트라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결코 쉽지 않은 곡인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미샤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연의 후반부에서는 2개의 교향곡을 하루에 한 곡씩 연주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베토벤 5번 교향곡입니다. 이 곡처럼 간결하고 파워풀하게 베토벤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교향곡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 무거운 삶의 고뇌와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베토벤은 매일매일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정 승리한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작곡가가 운명이라는 아이디어 앞에서 무너졌지만, 베토벤만 유일하게 승리했어요. 화산보다도 더 뜨거운 그의 열정과 사랑, 삶에 대한 숭고한 힘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점에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작품입니다. 이 곡을 함께 연주하는 디토 오케스트라 또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리허설을 진행하며 저는 디토 오케스트라가 살아있는 단체라고 느꼈습니다. 서로의 음악적 성향을 알아가고, 함께 즐기고, 음악 안에서 즐기고 노는 모든 과정이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드보르자크 9번 교향곡은 작곡가가 교향을 그리워하며, 그 기억과 추억을 그린 곡입니다. 저도 10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했지만, 한국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 곳에 몽클함과 따뜻한 온기가 있는데요. 이런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완벽한 곡이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 본 인터뷰는 2023년 9월 15일에 진행된 장한나 & 미샤 마이스키 기자간담회의 질의응답 중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효성과 함께하는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 YO-YO MA KATHRYN STOTT



캐서린 스톯

PROGRAM

-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d단조
- 파트 거울 속의 거울
-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외



2023.11.2 THU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ZIA MUSIC & ARTISTS

협찬

HYOSUNG

티켓

R석 18만원 | S석 14만원 | A석 10만원 | B석 6만원

예매

Club BALCONY

리켓링크

인터파크 티켓

예술의전당

2023

클래식 최고의 황금 듀오 새롭게 오르다

# 리처드 용재 오닐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STUDIO 808  
RICHARD YONGJAE O'NEILL

© SHINWON LEE  
DONG HYEK LIM

슈베르트

즉흥곡 Op.90, D.899 제1번, 제3번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Op. 19

2023.12.24 SUN 5 PM | 롯데콘서트홀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LOTTE CULTUREWORKS

예매

Club BALCONY

리켓링크

롯데콘서트홀



음악평론가 유정우와 함께 하는

# 북유럽 클래식 뮤직 크루즈 14일

북유럽의 백야, 대자연, 건축 그리고 최고의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는 꿈같은 여행

2024.6.15~28

ONLY!  
Club  
BALCONY



## CIELOS TOUR SEA & MUSIC 2024 북유럽 클래식 뮤직 크루즈 14일

- 여행일자 2024년 6월 15일 - 28일 (12박 14일)
- 상품가 1인 1,740만원~ (현금가/아웃사이드 캐빈 2인 1실 기준 / 항공 별도)
- 여행지 함부르크-브레머하펜 (독일), 스타방에르-베르겐-오슬로(노르웨이),  
에테보리(스웨덴), 코펜하겐-울보르(덴마크)

### PROGRAM

- [공연1]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지휘 : 테오도르 쿠렌치스) / 엘프필하모니
- [공연2] 베를린 필하모니 피아노 콰르텟 & 소프라노 말리스 패터슨 / 스타방에르 콘서트홀
- [공연3] 이고르 레빗 피아노 리사이틀 / 그리그할렌 베르겐
- [공연4] 다니엘 호프 '에어-바로크 여행' /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 [공연5] 테너 롤란도 빌라존, 소프라노 레굴라 무레안, 플랫폰 K+K / DR 콘체르트하우스
- [공연6] 울보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 뮤직 하우스

[선상공연] 미샤 마이스키, 릴리 마이스키 & 사샤 마이스키 트리오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 다니엘 호프

[부대행사]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렉처

- 음악평론가 유정우 전 일정 동행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멋진 백야에 즐기는 북유럽의 대자연과 최고의 공연,  
전세계의 우아한 클래식 애호가와 함께 여행하는  
꿈 같은 크루즈로 초대합니다.”

- 음악평론가 유정우



###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와의 만남

테오도르 쿠렌치스 지휘의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이고르 레빗, 롤란도 빌라존, 다니엘 호프, 미샤 마이스키,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 등 클래식 스타의 감동적인 무대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빈 필, 베를린 필 단원들의 앙상블 콘서트를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음악평론가 유정우의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정우 박사가 전 일정 동행하여 유럽의 음악, 역사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지식의 인문학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매일 열리는 선상음악회와 연주자와의 만남을 비롯, 함부르크의 랜드마크 엘프필 하모니,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북유럽을 대표하는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코펜 하겐 DR 콘체르트하우스, 베르겐 그리그할렌, 울보르 뮤직 하우스 기항지 콘서트까지 다양한 공간과 다채로운 앙상블의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10-2098-5266 차은희 실장 1577-5266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



# 장한나 & 미샤 마이스키

WITH 디토 오케스트라

CREDIA MUSIC & ARTISTS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